

“KIA 선발은 양현종... 이기는 경기 하겠다”

KIA vs 넥센 오늘 오후 6시 30분 와일드카드 결정전



“필승” 15일 고척 스카이돔 2층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넥센 히어로즈 이정후, 박병호, 장정석 감독,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 안치홍, 김윤동.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가을 역사'를 위해 양현종 카드를 선택했다.

가을 야구의 시작을 알리는 2018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가 15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KIA에서는 김기태 감독과 함께 '4번 타자' 안치홍 '필승조' 김윤동이 행사에 참여했다. 넥센 히어로즈에서는 장정석 감독과 팀 타선의 중심인 박병호, 이정후가 대표로 단상에 올랐다.

이날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선발 투수'였다.

4위 팀 장정석 감독이 먼저 제이크 브리검을 호명하며 5위 팀 사령탑 김기태 감독에게 마이크가 넘어갔다.

김 감독이 언급한 선발은 에이스 양현종이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한 발표였지만,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현종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행사장이 술렁거렸다.

양현종은 지난 3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3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었다.

이날 2-0으로 앞선 3회말 선두타자 최영진에게 솔로포를 내준 양현종은 2-2가 된 2사 1-3루에서 이원석에게 역전 스리런을 허용한 뒤 오른쪽 옆구리를 붙잡았다. 양현종은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까지 처리하고 내려왔지만, 옆구리 통증으로 다음 날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재검 결과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양현종은 지난 11일 1군에 합류해 훈련을 재개했다. 볼펜피칭까지 소화하면서

고척 스카이돔 '미디어데이'

김기태 감독 "부상 괜찮아 선발 등판"

임창용 등 모든 투수 볼펜 추가동 준비

"공격 야구 할 것... 뒷문 김윤동 기대"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의욕을 보였고, 중요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로 낙점됐다.

김 감독은 "부상으로 고민했는데 코칭스태프와 트레이닝 파트에서 게임이 된다는 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양현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전에 보고가 올라왔다. 본인 의지도 확고하고, 볼펜 피칭도 50-60개 정도 했더니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투구수는 잘 던져주면 좋겠지만 내일 컨디션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책임감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양현종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KIA는 에이스를 선택했다.

하지만 부상에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고, 2주기량의 공백이 있다. 또 3일 경기 포함 최근 3번의 등판에서 양현종은 13.1이닝 동안 23피안타(2피홈런) 6볼넷 11탈삼진 16실점을 하면서 10.80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만 기록했다.

경험과 의지라는 큰 무기를 가진 양현종이지만 최근 컨디션과 성적이 좋지 못한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KIA에는 내일이 없는 경기다.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는 만큼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2승이 필요하다. 무승부도 탈락을 의미한다.

양현종이라는 변수 많은 카드를 선택한 KIA는 임창용을 필승조로 대기시키는 등 볼펜 추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 감독은 "모든 선수가 볼펜 준비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 마운드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타선의 도움도 절실한 베팅 끝 승부다.

김 감독은 "뒷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윤동 선수가 잘 막아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뒷문 단속을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잘 댈려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화끈한 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김 감독은 수비가 까다로운 고척돔 구장의 특성상 공격형 라인업과 수비형 라인업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시즌 마지막 '강한 2번'으로 나치완을 전면에 배치했던 김 감독은 라인업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내일 끝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수비 쪽인지 공격 쪽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기존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길 수 있는 라인업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현종 카드'가 KIA의 무리수가 될지, 신의 한 수가 될지. 그 결과는 16일 저녁 확인할 수 있다.

/고척=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 "박병호 잡으면 승리" ... 박병호 "안치홍, 투수들이 막아줄 것"

"홈팬들에게 두 경기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KIA 김기태 감독과 "어렵게 온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넥센 장정석 감독,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는 두 팀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16일 치러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앞서 15일 결전의 무대 고척스카이돔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진행됐다. 5위로 포스트시즌에 합류한 KIA와 4위로 가을 잔치에 나서게 된 넥센은 마이크를 잡고 전초전을 치렀다.

장정석 감독이 먼저 "올 시즌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어렵게 온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준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고, 김기태 감독은 "홈 팬들에게 두 경기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고척에서 열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해 안방에서 준플레이오프까지 치르겠다는 의미다.

김 감독은 또 넥센의 대표 선수로 행사장을 찾은 박병호

와 이정후를 가리키면서 "미안하지만 쉽게는 안 지기 위해 준비했다. 재미있는 경기 해서 KIA 타이거즈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병호도 "넥센에 복귀해서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돼서 기쁘다.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면서도 "내일 한 경기로 승리해서 다음 (준플레이오프) 경기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윤동과 함께 KIA의 대표선수로 나선 안치홍은 부담감 없이 '똑같이' 하겠다는 각오다.

안치홍은 "지난해 좋은 성적 거두고 올해는 힘들게 올라왔다. 모든 각오를 가지고 강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치르고 간다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특별한 부담은 없다. 또 하루 지면 끝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시즌 치르는 것과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편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동도 역시 "정규시즌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 건 지난 것이고, 내일부터 시작될 와일드카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노리겠다고 이야기했다.

KIA와 넥센을 대표하는 두 선수인 안치홍과 박병호는 서로를 '키플레이어'로 꼽았다.

박병호는 "안치홍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 중심 타선에서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했었고,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안치홍은 언급한 뒤 "우리 투수들이 잘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치홍은 "넥센에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지만 박병호 선수가 가장 잡고 가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주자가 있든 아니든 가장 위험한 타자이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를 잡고 들어간다면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병호를 견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감독 "올 시즌 성적 반성 많이 했다"

미디어 데이 토크

▲반성 많이 했다 = 지난 시즌 우승팀 감독으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게 된 김기태 감독은 "우승은 했지만 올 시즌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다. 반성 많이 했다"며 올 시즌을 돌아봤다. 어렵게 포스트시즌에는 진출했지만 2016년 이후 두 번째 치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인 만큼 그때와 다르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김 감독은 "3년 전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좋은 경기 했다. 그때는 경험이 없었고 부담감도 있었다. 우리 선수들이 큰 경기 했었기 때문에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배들 말 잘 들겠다 = 고졸 2년 차 넥센 이정후의 첫 포스트 시즌 각오는 "선배님들 말씀 잘 들겠다"였다. 와일

드카드 미디어데이에 박병호와 함께 넥센 선수대표로 나온 이정후는 "데뷔하고 처음 포스트 시즌에 뛸 수 있게 됐다. 경험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속 텐데 어린 형들과 박병호 선배님 등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젊은 패기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 "대표팀 경험도 했는데 그때는 합숙 시간이 있어서 몸을 만들고 준비했었다. 지금은 시즌 끝나고 바로 치러지기 때문에 평소 시즌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 타석이라도 좋은 결과 내겠다 = 양현종을 상대하게 된 넥센의 거포 박병호의 다짐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박병호는 "상대 성적이 좋지 못하다. 내가 느끼기에 구위가 좋다. 하지만 내일은 단기전이고 거기에 맞춰서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몇 타석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성공하기

보다는 한 타석이라도 중요할 때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박병호는 양현종과 세 차례 만나 안타 없이 볼넷 하나와 삼진 두 개를 기록했다. 대표팀에서 양현종과 한술밥을 먹었던 이정후는 "대표팀에서 연습하고 시합하면서 왜 한 팀의 에이스이고 한국의 에이스인지 알게 됐다. 치홍이 형도 그렇고 여럿을 때부터 잘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포스트시즌에 만나게 돼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형상 분위기가 좋다 = 김윤동이 꼽는 KIA의 장점은 '분위기'였다. 김윤동은 "올해 좋지 못한 상황도 많았지만 우리 팀은 항상 분위기가 좋다"며 어려움을 이기고 포스트 시즌에 오른 만큼 '팀 워크'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또 "넥센 타수들을 상대할 때 상위, 하위 타순 만만한 타자들이 없다. 상대 타자들도 우리 볼펜 투수들을 그렇게 느낄 것이다"며 필승조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